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광둥외어외무대학교	기숙사비	4800위안/한 학기
파견지역	광저우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v)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8년도 2학기	기타비용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학과
성 별	여	학 년	3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8. 01 . 07 .

파견자 : △△△ (△△△)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먼저 처음 교환학생을 가면 교수님이 레벨 테스트를 하신다. 중국어 본문을 읽거나 책을 읽는 테스트니까 크게 부담을 안가져도 된다. 배정된 반 수업을 들어보고 자기 수준보다 낮거나 높다고 생각하면 반을 7교 사무실 가서 바꿀 수 있다. 반배정은 초급, 중급, 고급, 본과반으로 나뉜다. 본과반 수업은 hsk5급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 나는 원래 중4반이었는데 학생들이 오티를 들고 전부 다 반을 바꿔서 중4반이 없어져 중3반이 됐다. 그리고 고급반도 없어졌다. 중반중에는 중3반이 제일 높은 반이다. 원하는 반은 hsk4~5급 넘어가는 수준을 원했지만 중3반의 수준은 5~6급 수준이다. 일단 책 난이도가 너무 높고 교수님들의 교육방식이 너무 어렵다. 물론 이것도 어떤 교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수업과제도 반마다 다르며 우리반은 종합과제가 매일 있었다. 힘들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학교라고 무시한적도 있지만 교통이 정말 편하다. 다른 학교들보다 교통이 정말 편한거 같다. 버스와 지하철로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 말이다. 다만 버스정류장까지 가는게 힘들다. 그리고 택시비가 싸서 유학생들은 거의 택시를 타고다닌다. 근데 날씨가 너무덥다. 덥기만 하면 모르는데 너무 습하다. 나중에는 28℃정도는 별로 안 덥구나 생각하게 된다. 심심하면 주변광장 산책을 해도 괜찮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4800위안	내부구조	2인1실
기숙사 규정 사항	기숙사에 살지 않는 외부인 출입 금지		
주요사항	소음줄이기 새벽에 조용히 다니기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사 진 첨 부	<p>기숙사는 16동 기숙사와 c동 기숙사로 나뉘어 진다. 16동은 남녀같이 사는 기숙사이며 c동은 여자 기숙사이다. 본인은 c동에 살았으며 c동이 훨씬 쾌적하고 치안도 좋고 편리하다. 세탁기는 1층에 3대가 끝이다. 세탁기도 너무작고 한번 돌 릴 때 에러가 많이 나서 날 잡아서 빨래를 한다 방안에 등이 한 개가 있어서 어둡다. 광저우 날씨 때문에 습해서 곰팡이가 있다. 그리고 룸메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학교생활도 달라진다.</p>
	<p>c동은 조리불가 16동은 조리 가능하다 온수카드가 있어야 온수를 쓸 수 있다. 온수카드를 학생증으로 충전해서 사용가능</p>
사 진 첨 부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사 진 첨 부

도서관에 들어가려면 학생증 필수
평상시에도 도서관에 사람이 많다.
도서관은 오후 10시가 되면 불을 다 끈다
하지만 개인 좌석은 12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강의실은 7교 또는nba에서 수업을 듣는데
당연히 nba가 신 건물이기 때문에 깨끗하다
7교는 사람도 너무 많고 더럽다.

사 진 첨 부

학교 매점에 맛있는게 많다 학생식당, 학교매점
전부 학생증으로 결제 가능하다. 학생증에
돈을 충전하는 식의 방법을 이용한다.

사 진 첨 부

교환학생 파견 수기

처음 설렜던 마음을 가지고 간 한학기 교환학생이 끝났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거 같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난 아쉬움이 많이 남은 생활이었다. 그러나 날씨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을 제외하면 이번 교환학생이 내 인생의 한 획을 그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다시 광저우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부터는 많은 교환학생들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을 경험을 토대로 글을 써보겠다.

1. 중국에 유학을 가고 교환학생을 간다고 무조건 중국사람과의 교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광둥 외대 같은 경우는 외대라는 이름처럼 외국인이 정말 많기 때문에 본교 학생들은 외국인에게 관심이 없다. 나 같은 경우는 좋은 인연으로 친한 중국인 동생들을 8명 알게되었지만 주위에는 친구가 1명도 없는애가 정말 많다. 이는 중국인과 교류를 많이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거 같다. 그리고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고 애정이 있냐에 따라 다르다. 나 같은 경우는 공항에 데릴러 온 중국인 친구와 친해져서 그 친구 생일파티에 초대도 되고 그 친구가 자기의 친구들을 소개시켜줘서 발이 넓어졌다. 주위에 외국인 친구가 많은 친구들은 많지만 중국인 친구가 많은 사람은 나, 내 친구들이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2. 언어적으로 많은 학습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본인이 중국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안고 중국에 가는 것을 비추한다. 처음에 자신있게 중국어를 써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의기소침해진다. 특히 광저우는 광둥어도 사용하는 지역이어서 광둥어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에는 당당히 외국인이어서 광둥어를 못한다고 말을 하자. 그리고 수업방식이 hsk시험방식과 비슷해서 hsk문제를 푸는 기술이 늘어난다.

3. 한국인이랑 안어울리고 중국인이랑만 친구해야지! 이런 마인드는 다 거짓이다. 모든 한국인이 한국인과 어울린다. 근데 너무 한국인 끼리만 놀아서 결국 중국인 친구는 1명도 못사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나같은 경우는 나와 맞는 사람 몇 명만 사귀고 중국인들과 사귀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왜 중국인이랑만 노냐고 할 정도였다. 중국에서 물론 같은 나라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왕 내가 언어를 배우러 돈을 주고 간 곳에서까지 한국인이랑 계속 어울리는 건 아니라고 본다.

4. 문화가 정말 다르다. 서로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되는 경우도 많다. 나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충돌이 많았다. 그러다 보면 서로 기분이 상하게 되는데 언어적 장벽이 있으니까 항상 오해를 다 풀지 못하고 화해를 하게 된거 같다. 물론 지금은 다 풀고 잘 지내지만 오해를 풀기란 정말 힘들다.

처음 광외이에 갔을때는 학교도 정말 크고 내가 이 곳에서 잘 지낼수있을까 걱정이 많았던거 같다. 광외이를 떠날 때 보니 학교가 왜 그렇게 조그맣게 느껴지던지 아마 그만큼 적응을 잘하고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거 같다. 나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 누구보다도 중국생활에 일찍 적응하고 잘 지냈던거 같다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싶을 정도로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중국 교환학생은 내 22년 인생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했고, 잊지못할 추억을 만들어줬다. 언어적인 자신감과 능력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은 얻게된 것이 제일 좋은거 같다. 교환학생은 끝났지만 난 한국에서 중국친구들이 한국으로 여행오는 겨울방학을 기다린다.